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24일)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국화 장엄한 조계사서 가을 만끽 서울 도심 한복판, 조계사 경내를 장엄한 국화향기가 오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매년 가을을 맞아 국화축제를 개최해 온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가 10월 11일 '제12회 국화향기나눔전' 개막식을 열고, 종교와 세대를 넘어 부처님 도량에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었다. **사진=박재완 기자**

열암곡 마애불 '入佛', 대국민 원력불사로

불교중흥 위한 새 집행부 과제

①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 마애 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민족의 문화 자산을 천년이 넘도록 넘어진 채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끄러움이자 직무 유기입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밝힌 제안이다.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사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경주시는 입불(入佛)과 보존 방안을 위한 용역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북도와 문화재청은 관련 사업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조계종 역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우선 과제로 삼고 대국민 원력불사로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0월 12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와 관련한 자료 취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우 스님은 마애불 입불 사업의 슬로건으로 '천년을 세우다'를 제안했으며,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대국민 원력 불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진우 스님은 10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 현장을 찾아 마애불 입불을 발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조계종 문화부장 탄원 스님은 "불교를 넣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확대하기 위해 '천년을 세우다'라는 슬로건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제안하셨다"면서 "성금 모연 등을 통해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대국민 원력불사로 나아갈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T/F 조직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암곡 마애불은 지난 2007년 5월 22일 경주 남산 열암곡 석불좌상 복원정비사업 관련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마애불은 발견 당시 불상 상호가 바닥 바위와 5cm 떨어져 파손되지 않은 채 발견돼 '5cm의 기적'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다.

넘어진 열암곡 마애불에 대한 입불 사업은 문화재청의 보존 정책에 따라 달라져 왔다. 문화재청은 2011년 12월 마애불을 현 상태로 보존할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하부에 관람 공간을 조성하려 했지만, 이듬해 손상이 우려돼 거동 방안을 검토했다. 2013년에는 현 상태 보존을 결정했지만, 2015년에는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로 사업을 이관해 입불 방안 용역 등이 진행돼 왔다.

이후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백만원력결집불사 중 하나로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과제로 정하고 지난 2021년 11월 기원법회를 봉행하며 입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9월 28일 취임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국민 제안 이후 관련 정부 부처와 해당 지자체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불 국민 제안했던 진우 스님
10월31일 경주 현장 방문 예정
'천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국민 참여 원력불사 확대 추진
경주시·경북도 협조방안 강구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문화재청 등은 열암곡 마애불에 대해서는 그간 현상 유지를 통한 보존·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진우 스님의 대국민 제안 이후에는 입불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경북도 5개 본사에서도 마애불 바로 세우기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와 경북도 등도 열암곡 마애불의 입불에는 큰 이견이 없다. 류문규 경북도 문화재활용팀장은 "현재 실효적 복원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경주시와 문화재청 등과 함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입불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주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애불 입불과 보존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용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열암곡 마애불의 본래 위치다.

권상돈 경주시 문화재정비팀장은 "현재 주변 정비를 통해 입불할 수 있는 공법적 기반들은 확보한 상황"이라면서 "입불할 때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할 점은 마애불의 본래 위치를 찾는 것으로 현재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임영애 동국대 문화재학과 교수 역시 입불의 선결 과제로 본래 자리 찾기를 꼽았다. 임 교수는 "제대로 복원을 하면 불상의 원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경주시의 용역에서도 해당 부분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고려할 것은 안정성 확보다. 경주 지역은 과거에도 지진이 일어난 곳이고, 불상도 지진 때문에 엎어졌다"면서 "이런 부분이 선결돼야 마애불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81명 의원 최종 확정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직선직 의원을 선출하는 24개 교구본사 중 19곳이 무투표당선을 확정지음에 따라, 5곳만 경선으로 진행됐다. 직능직 의원 20명과 비구니 의원 10명도 일찌감치 자격심사를 통해 당선이 확정돼, 종단 내부적으로 화합을 위해 과열경쟁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인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3일 오후 1시~3시 5개 교구본사에서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됐다. 선거가 진행된 교구는 직할교구와 제6교구 마곡사, 제11교구 불국사, 제21교구 송광사, 제24교구 선운사다.

선거 결과 직할교구에서는 효명 스님과 종원 스님, 도심 스님과 탄웅 스님이, 마곡사는 종봉 스님과 태진 스님이, 불국사는 성행 스님과 성제 스님이, 송광사는 일화 스님과 시공 스님이, 선운사는 태효 스님과 재안 스님이 선출됐다.

과열경선 자제로 화합분위기
10월 13일 5개 본사서 경선
10월 10일 직능선출위 열어
직능·비구니의원도 최종확정

직할교구는 도심 스님이 78표로 최다표를 획득한 가운데 탄웅 스님이 67표, 효명 스님이 52표, 종원 스님이 49표를 받아 당선됐다. 진우 스님은 19표를 받아 낙선했다.

마곡사는 선거인단 124명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봉 스님과 태진 스님이 각각 57표와 34표를 득해, 27표를 받은 제민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불국사는 선거인단 92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행 스님과 성제 스님이 각각 24표씩 획득해 20표를 받는 각천 스님을 제치고 당선됐다.

송광사는 선거인단 242명 중 211명이 참석해 접전 끝에 일화 스님과 시공 스님이 각각 77표, 70표로, 63표를 받은 진경 스님을 7표 차로 이겨 당선확정됐다. 선운사는 선거인단 101명 전원 참석해 태효 스님과 재안 스님이 각각 39표, 29표로 당선됐다. 도정 스님은 20표를 받았으며 무효표는 2표로 확인됐다.

앞서 후보등록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등록했던 제12교구 해인사는 자격 심사 전 종인 스님과 불암 스님, 향록 스님이 사퇴를 결정했고, 경선이 예상됐던 제15교구 통도사는 진무 스님이, 제17교구 금산사는 원묵 스님이 사퇴하면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또 제9교구 동화사도 선안 스님의 사퇴로, 제14교구 범어사는 범종 스님의 사퇴, 제16교구 고운사는 등안 스님의 사퇴로 경선 없이 후보가 선출됐다.

지난 10월 10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위원장 진우)는 제42차 회의를 열고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10명에 대한 선출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분야별 직능대표는 율원분야에 경암 스님과 원명 스님, 선원분야에 성웅(철산) 스님과 심우 스님, 강원분야에 무관 스님과 오심 스님, 교육분야에 진각 스님과 법성 스님, 포교분야에 각연 스님과 가섭 스님, 사회분야에 유석 스님과 법원 스님(대흥사), 복지분야에 보인 스님과 무경 스님, 문화분야에 현담 스님과 원각 스님, 법제분야에 덕현 스님과 법원 스님, 행정분야에 진화 스님과 우봉 스님이 확정됐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정운 스님, 철우 스님, 진명 스님, 정관 스님, 혜도 스님, 진상 스님, 혜성 스님, 법해 스님, 지인 스님, 설해 스님 등 10명이 확정됐다.

새롭게 선출된 제18대 중앙종회의원은 11월 9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관련기사 5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